

63년 창립 ... 회원 1천5백여명 가입

한국원예학회

1963년 창립하여 올해로 37년째를 맞고 있는 한국원예학회는 회원 1천5백여명이 가입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펴고 있다.

영남에 지부를 두고 있는 원예학회는 6개 위원회와 10개 연구회를 중심으로 원예학회지 및 원예과학기술지를 발간하고 각종 학술행사와 학회 정보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한국농업 현대화 1백주년이 되는 2006년에는 국제원예학술대회를 유치기로 하고 현재 그 준비사업을 진행중이다.

한국원예학회는 원예학에 관한 연구 및 그 지식의 보급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원예산업과 관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며 원예의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63년에 창립하여 올해로 37주년을 맞이하였다. 1천5백여명의 회원들이 가입되어 있으며 초대 김동우회장, 2대 김성원회장, 이태현회장에 이어서 제20대 김규래회장(현 경북대학교 교수)이 선임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전임 회장을 비롯하여 현 회장단, 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에 힘입어 여러 가지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회는 많은 발전을 하고 있다.

6개 위원회·10개 연구회 조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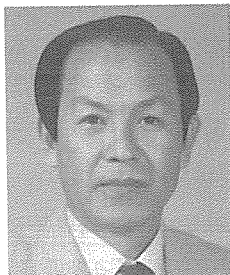
한국원예학회 임원의 구성은 회장 1명, 차기 회장 1명, 부회장 5명, 간사 6명, 감사 2명, 상임평의원 25명, 평의원 1백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기는 회장, 차기 회장, 간사는 1년, 부회장과 기타 임원은 2년

으로 되어 있고, 산업체, 학교, 연구소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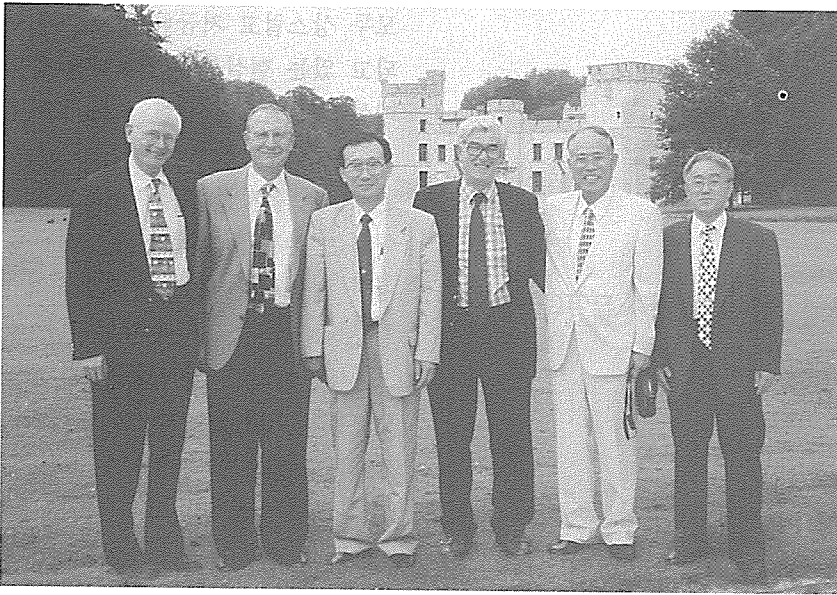
한국원예학회는 영남 지부를 두고 있으며, 한국원예학회지 편집위원회, 원예과학기술지 편집위원회, 심포지엄위원회, 학회상 심사위원회, 21세기 준비위원회, 제27차 IHC(International Horticultural Congress) 조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심포지엄위원회는 6개부문(채소, 과수, 화훼, 시설원예, 저장유통, 유전육종)으로 나뉘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학회상 심사위원회는 차기 회장이 위원장직을 겸하고 있으며, 정기총회 시에는 채소, 과수, 화훼 분야별로 1년간 가장 우수한 논문 1편씩을 시상하며, 임시총회시에는 흥농종묘(주)의 후원으로 원예공로상과 학술공적상을 각각 수여하는 가운데 올해로 3회를 맞이하고 있다. 또한 10개의 각종 연구회, 예를 들면 저장유통연구회, 화훼연구회, 감자연구회, 감연구회, 무궁화연구회, 산채연구회 등에서는 각자 연구회지를 만들어 분야별로 심도있는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 2회 이상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준비위원회는 6개의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생활원예교과목 개발위원회에서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과학기술 대중화사업의 일환으로 보조를 받아 「생활과 원예」라는 책을 편찬하기로 하였다. 이 책은 쉽고, 즐겁게, 생활에 유익하도록 내용이 전개되며 원예, 농업, 환경의 중요성에 대하여, 원예학적이라기 보다는 자연과학적이



金 圭 來
(한국원예학회회장)



▲ 27회 IHC 유치결정후 ISHS 집행부와 한국원예학회 유치위원과 함께

면서도 철학적, 사회학적, 심리학적 접근을 동시에 갖추으로써 교양차원에서 이해하기 쉬우며 전체 분량은 4백~5백쪽 정도이다.

한국원예학회는 국제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1983년 5월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로 '시설원예', 1993년 5월 30주년을 기념하여 12개국의 석학들이 모여 '동북아시아 원예의 과거, 현재 및 미래', 1994년 8월 '백합', 1997년 10월 27일~10월 30일 '신선 및 발효채소의 품질'이란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그리고 2001년에는 PBR in Fruit Production을 추진하고 있다. 학회의 중요한 사업으로는 한국원예학회지 및 원예과학기술지 발간, 학술행사 개최, 학회 정보화사업을 비롯하여 2006년 국제원예학술대회 개최를 위한 많은 준비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다. 한국원예학회는 매년 6회 격월간으로 발행되며 SCI 등재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으로 논문게재를

위한 철저하고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며 게재편수가 호당 계속 증가추세에 있으며, 현재는 1호당 25~30편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다. 제2의 학술지인 원예과학기술지는 연구논문의 경우 3인 이상의 심사를 거쳐 산업현장에서 손쉽게 실용화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쪽의 논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원예관련 학계 뿐만 아니라 산업계와 생산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원예정보도 같이 제공하는 미국원예학회의 HortScience 체제를 따르고 있다. 1998년 현재는 연 4회 발간하고, 1999년부터 연 6회 발간할 계획이다. 또한 CD-ROM도 이미 제작되어 있으며 단체나 개인이 30여년간의 논문을 컴퓨터로 저자별, keywords별로 빠르게 검색할 수 있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원예학회는 1년에 2회 학술발표회(춘계, 추계)를 2일에 걸쳐 개최하고, 8백여편의 연구논문 발표와 분야별 심포지엄을 가지며, 매년 그 발

표논문 편수가 증가하고 있다.

학회 정보화사업으로는 회원 인적사항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있으며 학회소식이 인터넷사이트로 입력되어 검색이 가능하다(<http://aginfo.snu.ac.kr/horticulture>)

한국원예학회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학술단체연합회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국원예학회는 학술상(채소, 과수, 화훼분야로 나누어)정기총회시 시상하며, 흥농종묘의 지원을 받아 원예공로상 및 학술공적상을 임시총회시 시상하고 있다.

2006년 국제학술대회 개최

앞으로 한국원예학회는 영문논문집 발간, 인터넷사이트를 이용한 논문발표회 등 많은 정보화사업 및 국제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27차 국제원예학대회(International Horticultural Congress, IHC)를 한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4년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지난 8월 1일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서 개최된 제25차 총회에서 최종 확정되어 올해의 가장 커다란 학회사업을 이룩하게 되었다. 2006년은 한국농업 현대화 1백주년인 해이므로 정부차원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하며 21세기 한국농업의 주역으로써 외형적인 행사보다 수준높은 한국원예학을 선보여 선진원예산업의 세계화를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범 국민적으로 원예생활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도 전개해나가는 등 회원 모두가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총 매진해야 할 것이다. ①7